

야마타노오로치 모뉴먼트

여덟 개의 머리와 여덟 개의 꼬리를 가진 신화 속 큰 뱀 ‘야마타노오로치’를 모티브로 한 모뉴먼트입니다. 조형 미술가 이토 다카미치(1939~)가 제작했으며, 1985년에 쓰쿠바(이바라키현)에서 개최된 국제과학기술박람회(쓰쿠바 엑스포)에 출품되었습니다. 모뉴먼트의 길이는 19m, 높이가 6.98m에 달합니다.

야마타노오로치 전설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에 등장합니다. 문헌 속 전설에 따르면, 스사노오노미코토(신도의 신들 중 하나)가 천상에서 강림하여 센쓰산(여기서 약 8km 거리)에 내려왔습니다. 그곳에서 스사노오노미코토는 야마타노오로치가 딸을 잡아먹으러 올 것이라고 탄식하는 부부와 만나게 됩니다. 스사노오노미코토는 야마타노오로치를 퇴치하고, 괴물의 꼬리 안에 검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. 이때 발견된 검은 훗날 일본 황실의 보물인 삼중 신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. 이러한 전설은 오쿠이즈모 지방과 도검 제작이 예로부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부각시킵니다.